



제 393 호 2015년 4월 8일 발행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 031-481-2042 FAX : 031-481-3224 E-mail : bravo@iansan.net

브라보 안산

Ansan city Newspaper
Bravo Ansan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b](http://blog.naver.com/cityansan) blog.naver.com/cityansan

[t](https://twitter.com/ansancityhall) twitter.com/ansancityhall

[f](https://facebook.com/ansancity3) facebook.com/ansancity3

[k](https://story.kakao.com/ch/ansancity) story.kakao.com/ch/ansancity

02면 특집 / 세월호 1주기

별이 된 아이들을 만나러가요

04면 생태·관광

대부도 남쪽 24km,
꽃섬 풍도

06면 생활·경제

안산가구! 보러가구! 사러가구!
상록수 가구거리 문화축제

08면 숲의 도시, 안산

‘백운공원’ 이야기



슬픔만큼 큰 책임감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나긴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이다.

벚꽃은 잊지 않고 다시 피는데

떨어진 꽃들은

별이되어 가슴에 흐른다.

‘사월은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워내는 잔인한 달’이라고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은 그의 유명한 시 「황무지」에서 이렇게 읊었다. 2014년 4월 16일은 안산시민, 아니 전 국민에게 가장 잔인한 봄날이었다. 지난 1년 동안은 절망과 슬픔 그리고 분노와 좌절 속에서 타는 가슴을 쓸어내야만 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황폐화된 정신적 공황상태를 조금이나마 벗어나고자 사회 곳곳에서는 다각적인 추모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304명의 희생자 중에는 아직도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들도 있다. 희생자에게는 안식과 평안을, 그 유가족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시민에게는 이제부터라도 절망을 딛고 일어나기 위한 위로의 추스림이 되기를 기원하며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에서 본지(本紙)는 세월호 특집 기사를 기획하였다. 2015년 4월은 치유와 희망의 계절이며 추모와 위안의 계절이 되기를 기대한다.

‘약속의 달, 4월’ 별이 된 아이들을 만나러 갑니다

추모음악회, 합동분향식, 시민참여한마당 등 다양한 행사 열려

어김없이 올해도 봄은 찾아왔다.

작년 4월, 어두운 바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흘러나오던 눈물을 흠치던 고통스런 기억들이 아직 사그라지지 않은데, 벚꽃은 무심하게 다시 피고 있다. 아직 바다에는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9명과 세월호 사고의 진실이 갇혀있다. 1년이 되어 다시 돌아온 4월 16일에 안산시민들은 뭘 할 수 있을까.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안산의 여러 단체에서는 ‘별이 된 아이들을 만나러 가요’란 주제로 4월 한 달간 다양한 추모행사와 강연회, 전시들을 진행한다.

특히 4.16 1주기 안산집중행동주간으로 정한 11일부터 18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은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 안산시민대책위에서 준비한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진다.

먼저, 11일(토) 오후 1시에는 ‘4.16 1주기 집중행동주간 선포식’이 안산합동분향소 앞에서 열린다. 선포식이 끝나는 2시부터는 분향소에서 출발해 도보로 단원과 하늘공원을 행진하는 ‘별과의 동행’ 행사가 열린다. 이어지는 4.16 1주기 콘서트 ‘지난 봄 너의 눈물’에서는 초대가수 강산애와 한영애, 극단 ‘동네풍경’의 공연이 펼쳐진다.

12일(일)에는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안산합동분향소 앞에서 ‘4.16 시민참여한마당’이 열려 다양한 체험과 전시부스가 운영되며, 버스킹 공연도 이어진다.

16일(목)에는 ‘세월호 참사 1년 4.16합동분향식’이 오후 2시에 합동분향소 앞에서 ‘끝까지 찾아줄게 끝까지 밝혀줄게’라는 제목으로 열린다.

안산시 고교 회장단 연합 COA 학생들이 주최하는 학생



들의 추모제도 10일 오후 7시에 열린다. 이날 학생들은 합동분향소에서 안산문화광장까지 3km 도보행진을 한 후, 문화광장에 모여 자유발언으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고, 희망을 노래하는 합창과 공연, 희망 메시지를 풍

선에 담아 날리는 행사를 진행한다.

4.16을 기억하는 다양한 강연회도 열린다. 안산온마을센터에서는 14일 2시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소극장에서 배우 김여진의 시민강좌 ‘우리 지금 괜찮은가요?’를 진행한다. 또 치유공간 ‘이웃’에서는 15일 오전 10시에 정혜신 박사와 함께 나누는 이웃이야기 ‘4.16을 기억하는 이야기마당’이 열린다.

세월호 참사 후 1년 동안 모아왔던 다양한 사진과 자료들도 4월 추모기간 내내 안산문화예술의전당과 안산시 4.16 기록관(구 상록구청), 합동분향소에 전시된다.

특히 416기록저장소에서는 세월호 참사 기억프로젝트 첫 번째 이야기로 ‘아이들의 방’ 전시가 6월까지 열린다. 단원고 희생 학생들의 빈방과 개인기록물 사진이 전시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16명 사진가들의 작품 110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수학여행의 출발지인 안산과 도착 예정지였던 제주, 그리고 서울 등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안산과 서울 전시에는 단원고 희생 학생 54명의 빈방 사진이, 제주에는 56명 학생의 유품 사진이 전시된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은 추모음악회 ‘4월의 안산, 슬픔을 안고 희망을 노래하라’를 25일(토) 오후 4시에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공연한다. 국악인 김영임, 가수 신형원, 소프라노 신텔라 등의 출연진이 함께한다.

• 문의 : 세월호안산시민대책위 ☎ 031-486-5105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이 공감주제에 투표하고있다

4.16이후 안산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하고 활성화 시킬 것인가?

“동네 아이들과 인사하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

‘4.16 희망과 길찾기 안산시민 후속토론’이 지난 3월 28일 오후 안산시청 대회의실과 초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월 7일 열린 안산시민 대토론회 ‘4.16 희망과 길찾기 1000인이 말하다’에서 논의된 안산시민들의 다양한 제안들을 4가지 주제로 분류해 더욱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심화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후속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였던 ‘안산공동체 어떻게 회복하고 활성화 시킬 것인가?’를 논의했던 안산시청 대

의실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전해본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다양한 안건들을 제안한 후, 비슷한 의제들을 한 그룹으로 묶어, 각 안건 별로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한 그룹으로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룹별로 토론한 결과들을 돌아다니며 살펴보면 공감 가는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투표를 하고, 6주 이내에 시작할 수 있는 실천 계획을 나눴다.

‘안산시민 50%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요?’, ‘그만하자, 라고 말하는 이웃들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4.16 이전과 이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등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1조의 이계숙 씨(성포동)는 안산 공동체의 문제는 안산시민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많은 안산시민들이 참여할 방법을 고민했다. “미참여 그룹을 발굴해서 1분 기도, 반찬봉사, 산책동행, 뜨개질 같이하기 등과 같은 작은 실천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이웃에 공감하고 열린마음의 자세로 준비하면 어떻게요?’란 주제로 토론을 했던 11조의 윤성웅 씨(사1동)는 ‘동네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안부를 묻고 인사 하자’는 ‘19금 캠페인’을 제안했다. 어른들만 할 수 있다는 뜻을 가진 이 캠페인은 어른들이 출근길에 등교하는 청소년을 만나거나,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무조건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씨는 “동네 아이들 입에서 ‘어른들이 미쳤나봐’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다보면 이웃과 좀 더 열린 마음을 갖게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박선미 씨(초지동)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동네에서 마음껏 웃고, 즐겁게 풀어들 수 있도록 크게 한판 놀 수 있는 ‘다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라는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박 씨는 “동네 사람들과 합창이나 뮤지컬 등을 몇 주간 함께 연습해 공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같이 웃고 웃으며 긴장도 풀고 활력도 되찾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 ‘4.16 희망과 길찾기 안산시민 후속토론’은 1000인 원탁토론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좀 더 세부적이고 다양하게 정리해 시와 정부에 제안하거나, 시민들과 실천하게 된다.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세월호 트라우마, 이웃이 묻고 정혜신이 답하다



트라우마(trauma)는 일반적인 의학용어로는 '외상(外傷)'을 뜻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정신적 외상' 또는 '영구적인 정신장애를 남기는 충격'을 말합니다. 트라우마를 겪으면 그 당시의 상황이 장기 기억되는데, 사고로 인한 외상이나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사고 당시와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당시에 느꼈던 극심한 불안을 다시 경험하게 되거나 영원히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한때 '힐링'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진정한 '치유'란 뭘까요?

'치유'라는 것은 굉장히 소박한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 상대방의 마음을 살짝 만지는 것,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울컥하는 그때가 바로 치유의 순간이죠.



사람이 사람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순간이든 치유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나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가족 아버님이 카톡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서명운동을 할 때 자식 죽여놓고 보상받으려고 한다는 등 사람들이 비수를 너무 많이 꽂아서 힘들고 죽고 싶은 상태였는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게했던 일이 생겼대요. 진도 팽목항에 있을 텐데, 밤이 되면 너무 추웠대요. 추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밤새 구부리고 앉아 있었는데, 잠이 들락 말락 할 때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어떤 여학생이 핫팩을 등 뒤에 살짝 두고 갔대요. 따뜻하라고, 그분은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가 없대요. 그 여학생의 마음이 너무나 절절히 느껴졌던 거죠. 사실 핫팩 하나 등 뒤에 살짝 놓아주는 것이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이런 사람들이 도처에 있구나. 그렇다면 살아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나 사는 것, 내 새끼 거두는 것 외에는 한 번도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이제부터는 나도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학생은 유명한 정신과 의사보다 훨씬 강력한 치유자였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바꾼 거예요. 살까 말까 하는 사람을 살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이 자기가 그랬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을까요? 아마 그 여학생은 자기가 진도에서 한 행동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할 거예요.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 그저 '나는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로 이런 게 치유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Wounded Healer)'라는 용어가 있어요. 치유자 중 최고봉은 자기가 상처를 입어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치유받아본 경험을 통해 최고의 치유자가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4월 16일 이후에 모두 상처 입은 사람이 되었어요. 너무나 갑작스레 부당한 죽음들을 목격했고,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옆 사람에게도 가장 좋은 치유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트라우마의 진짜 치유자는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 '이웃'이어야 합니다. 같이 손잡고, 같이 눈물 흘리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간절히 기도하고, 밥 한 숟갈 함께 먹을 수 있는 것, 이렇게 서로에게 이웃의 역할을 하는 것이 치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나요?

일상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걸 몰라서 못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정말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애도하고, 충분히 그리워하고, 충분히 기억해서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면 사람은 자연적으로 편안하게 일상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빨리 잊어야지, 내가 그러면 안되지, 멀리 털어버려야지, 정신 차려



야지.'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희생학생의 형제들 가운데 미친 듯이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린 나이지만 너무 괴로우니까 공부에 빠져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공부로 극복하면 무조건 칭찬을 합니다. '아, 애가 마음을 다잡았나 보다. 애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구나.' 이런 시그널로 보는 거죠. 아빠들 중에서도 일에 막 열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몹시 위험한 겁니다. 뭔가를 잊으려고 한다는 건 지금 뭔가가 너무 많이 떠올라서 괴롭다는 뜻이거든요. 괴로움을 잊기위해 그 괴로움만큼이나 강한 무언가에 몰입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게 치환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이 떠오르면 충분히 기억하고, 그리워지면 충분히 그리워하고, 울고 싶을 때 충분히 운 사람은 이다음에 누군가가 '너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어라. 너 우울증 환자가 되어라.'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의도적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자.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주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한테는 원래의 건강성, 원래의 균형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채워지면 저절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고, 뭔가를 자꾸 치우려고 하고, 현실을 자꾸 외면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오히려 더 길게 갑니다.

정혜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008년부터 고문 피해자를 돕기 위해 만든 재단 '진실의 힘'에서 고문치유모임의 집단 상담을 이끌었고, 2011년 생용차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집단 상담을 시작하였으며 심리치유센터 '와락'을 만들었다.

진료실에 머무는 의사가 아닌, 거리의 의사가 꿈인 정혜신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에 거주하며 '치유공간 이웃'의 이웃치유자로 살아가고 있다.



자료제공 : 치유공간 이웃

세월호 1주기 특별기획전

'천상의 나비가 되어' 14일부터 19일까지 단원미술관에서 열린다

세월호 추모 1주기 특별기획전 '천상의 나비가 되어'가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단원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특별전은 지난해 7월 한국미술협회 안산지부 주최로 열린 세월호 특별전 직후부터 계획되고 있었다.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가족, 시민과 아픔을 나누고 나아가 문화적 바탕 위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세월호와 관련한 제반 문제의식들이 고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이번 전시에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미술협회 진도지부 회원들도 참여한다는 것이다. 진도에서 활동 중인 33명의 회원 중 20여 명이 '천상의 나비가 되어' 특별전에 참가해 마음을 보냈다. 3월 말 현재 모든 작품들이 완성된 상태이며 이제 전시만 남겨놓고 있다.

이번 '천상의 나비가 되어' 전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진다. 작가 개인의 기술적 상상력을 통해 작품을 구현하는 방식과 일상적인 오브제(objet, 상징적 기능의 물체)나 이미지를 공간에 밀접하게 개입시켜 기억 자체를 환기시키는 방식이다.



이동수 (상장-기억)

결국 이러한 두 방향성은 시각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통해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접철된다.

이번에 전시될 작품은 총 140여 점으로 2014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시각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안산만화협회 회원들의 세월호 100일 추모전 작품 70여 점을 현수막으로 만들어 실외 전시도 계획하고 있다.

안산미술협회 유기환 부회장은 "그림을 통해 모든 시민들에게 위로가 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다. 아픔을 딛고 승화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1주기 추모 특별전은 단원미술관에서 열리지만 2주기 추모 특별전은 진도에서 열 계획"이라고 했다.

- 전시기간 : 4월 14일 ~ 4월 19일
- 문의 : 단원미술관 ☎ 031-481-0502



대부도 남쪽 24km, 꽃 섬

풍도

豊島

겨울을 이겨낸 '복수초·노루귀·풍도바람꽃' 등 야생화 천국



복수초

평의바람꽃

풍도바람꽃

평의바람꽃

풍도대극

복수초

노루귀

야생화의 천국이라 일컬어지는 풍도는 안산9경 중에서도 6경에 해당한다. 대부도 남쪽에 위치한 서해의 작은 섬 풍도. 섬 중앙의 야트막한 후망산은 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수줍게 피어난 야생화들의 보금자리다. 흰 눈 속에서 제일 먼저 피어올라 '설련화'로도 불리는 노란 꽃잎의 '복수초', 꽃대에 솜털이 보송보송한 '노루귀', 풍도에서만 피어나는 '풍도바람꽃', 연두 빛 잎새 사이사이 빨강 꽃을 피우는 '풍도대극'. 꽃 섬 풍도의 야생화들은 야생화 동호인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진작가들을 섬으로 불러 후망산 근각지 앞에 엮드리게 만든다. 꽃 피는 곳에 새도 운다. 검은이마지박구리가 후망산에 오르는 사람들을 아랑곳 않고 대숲에 앉아 있다.

풍도는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없다. 인천항이나 대부도 방아머리선착장에서 하루에 한 번 배가 뜬다. 방아머리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1시간 30분쯤 남쪽으로 달려가면 50가구 120명이 살고 있는 넓이 1.84km²의 조그마한 섬 풍도를 만날 수 있다. 사람이 사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조용하고 한가로운 마을풍경은 풍도에 닿아 만날 수 있는 한적함이다. 전

교생이 3명뿐인 대남초교 풍도분교의 아이들은 학교가 파한 후 무엇을 하며 놀까. 섬에 하나밖에 없는 풍도슈퍼 유리문에는 '물건을 사러 오신 분은 벨을 누르시오'라는 문구가 붙어있다. 마당 한쪽에 '식사가능' 팻말이 박혀있는 민박집의 분위기가 소박하다. 후망산으로 올라가는 입구에는 차례대로 교회와 복지관이 있다. 후망산에서 내려다보이는 마을 전경은 그림 같다. 빨강, 파랑 지붕이 쪽빛바다와 하늘을 배경삼아 놓여있는데, 조용하고 작은 마을을 보고 있노라면 근심걱정이 다 사라지는 기분이다.

섬 이름 풍도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은 바람 풍(風)의 풍도를 떠올리지만, 풍도는 단풍나무가 많아 풍도(楓島)라 불렀다. 현재는 과거 청나라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일본이 풍요롭다는 뜻의 풍도(豊島)라 사용한 뒤로, 계속 그대로 굳어진 상태로 풍도(豊島)로 불린다. 이름과 달리 풍도의 주변에는 갯벌이 없어 생각만큼 자원이 풍부하지는 않다. 예전 주민들은 해마다 겨울 몇 달을 인근의 다른 섬으로 이주해 수산물 채취하며 생활했다고 한다. 현재는 야생화와 후망산

뒤쪽 비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풍도를 방문하고 있어 마을 주민들은 민박과 산나물 채취, 밭농사와 어업으로 생업을 잇고 있다.

풍도의 아름다움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풍도를 찾아주는 것은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지만 사람의 발길이 닿아 훼손되는 자연환경은 또 다른 숙제로 다가온다.

안산시 관계자는 "풍도의 아름다움이 알려지는 것은 좋지만, 풍도의 자연환경이 시들어가고 있어 무척이나 안타깝다"며, "특히 사진촬영을 위해 야생화를 덮고 있는 낙엽들을 걷어내고, 마구잡이로 나무사이를 헤치고 들어가 여러 야생화를 심하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풍도를 찾는 사람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풍도를 오래오래 보물섬으로 남아있게 할 것이다.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econojin@naver.com>



제8회 안산관광사진 공모

안산의 매력을 사진에 담아보세요



K형,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낙엽 속에서 힘차게 꽃대를 밀어올리고 수줍게 피어난 야생화들을 촬영하기 위해 풍도 후망산에 엮드리 계신가요?

추위를 이겨내고 하얀 꽃잎을 활짝 연 '풍도바람꽃', 연초록 잎 속에서 빨간 꽃을 피어올린 '풍도대극', 황금빛 색노란 '복수초'가 야생화를 좋아하는 동호인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진작가들을 풍도로 불러들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부도에서 남쪽으로 24km 떨어진 곳에 자리한 풍도, 사진에 잘 담아보세요. 안산의 이곳저곳을 담은 사진공모전이 열린답니다. 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대부도를 비롯해 안산9경 등 안산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안산시가 여는 공모전입니다. 올해로 9회 째 열리는 대회인데요 사진에 대해 K형이 갖고 있는 관심, 열정이라면 살아 숨 쉬는 안산의 생태환경과 다이내믹한 사회·문화를 충분히 담아내 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안산식물원과 단원조각공원에 찾아 온 봄소식도 놓치지 마세요. 식물원 이웃에 위치한 제일컨트리클럽의 벚꽃축제도 잊지 마시고요. 5월 첫째 일요일 3일에는 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태국의 설 명절-송크란 축제에도 가보시길 권합니다. 태국 노동청이 안산에서 설을 맞는 자국 노동자를 위무하기

위해 여는 축제랍니다. 전국 제일의 다문화도시 안산에는 7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있지요. 이들로부터 꽃 피는 다양성은 원곡동 다문화거리에서 느낄 수 있어요. 5월 1일부터 3일까지는 고잔 신도시 문화광장에서 열리는 '국제거리축제'를 찾아주세요. 빠트리면 정말 후회하게 될 겁니다. 사진으로 전해보세요.

안산의 9경도 소개할게요. 물론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대부 해솔길, 구봉도 낙조전망대, 탄도바닷길, 갈대습지공원, 노적봉 폭포, 다문화거리, 시화호 조력발전소, 동주염전, 풍도/육도입니다. 이밖에도 카메라 앵글에 담을 곳이 안산에는 무척 많지만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힘이 드네요.

공모전 사진 출품은 오는 9월25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안산의 명소를 철따라 사진에 담고 그중 제일 잘 된 작품으로 4점을 골라 출품하세요. 입상작에 주어지는 상금도 무시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금상 1명에게는 200만원의 시상금과 은상 2명(각 100만원), 동상 3명(각 50만원), 가작 5명(각 30만원), 입선 64명(각 10만원)에게 각각 상금이 주어집니다. 또 입상작은 안산시민에게 선보이기 위해 별도의 전시회가 마련됩니다.

안산의 이곳저곳을 카메라에 담아 온 K형 혼자 찍어 혼자만 보지 마시고 올해는 안산시민과 공유하시면 어떨까요.

- 사진접수 : www.webhard.co.kr / ID : photo7038, PW : 7038
- 문 의 : 한국사진작가협회 안산지부 ☎ 031-483-5852
안산시 관광과 ☎ 031-481-2105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과학적인 정수과정 거친 수돗물, 안전하고 깨끗해

‘물 사랑 워터투어’... 정수에서 하수종말처리까지 수돗물 여정 보여줘



아이들이 워터투어에 참가해 정수처리 과정 설명을 듣고 있다

“팔당댐에서 끌어 온 물을 과학적으로 정수처리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로 탄생시키는 과정이 신기했어요”

안산시 ‘물 사랑 워터투어’에 참여한 와동 덕인초등학교 6학년 최수호 군의 소감이다. 최수호 군은 지난 4월 2일 김종문 담임교사의 인솔로 급우들과 함께 안산정수장에서 수돗물이 생산되는 전 과정을 돌아봤다.

김종문 교사는 “물의 소중함을 배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물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 자세를 갖도록 워터투어에 참여했다.”며, “수돗물의 생산과정과 하수 처리과정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살아있는 교육이 됐다.”고 말했다.

안산시 ‘물 사랑 워터투어’는 각 가정으로 보내지는 수돗물의 생산과정과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 처리과정을 직접 보

고 체험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유치원생부터 가정주부를 포함한 안산시민에게 인기가 높다. 팔당댐 상수원이 관을 통해 안산정수장까지 옮겨져 여러 단계 과학적인 정수과정을 거쳐 각 가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각 가정에서 사용된 수돗물이 하수종말처리장(단원구 해봉로 13)을 거쳐 서해로 흘러 들어가는 과정을 투어에 담아 수돗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물 절약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안산수돗물에 대한 신뢰까지 높이고 있다.

팔당호 취수장에서 안산 정수장으로 물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정수 첫 단계로 착수정에 모이게 된다. 착수정은 팔당에서 들어오는 물의 흐름을 안정시키고 수량을 조절해 정수 다음 단계로 보낸다. 흐름이 안정된 팔당원수는 혼화지에서 정수약품과 섞여 불순물 제거가 시작된다. 혼화지에서 정수약품과 섞인 불순물은 무거운 알갱이(플록)가 되도록 응집지로 보내진다. 응집지에서 크고 무거운 알갱이로 변한 불순물은 침전지에서 찌꺼기로 가라앉고 맑은 물만 여과지로 보내진다. 여과지로 들어온 맑은 물은 모래층을 통과하면서

더욱 맑게 여과된다. 깨끗하게 여과된 물은 마지막 단계로, 남아있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정수지에서 소독약인 염소와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가 투입된다. 이때 투입되는 소독약의 성분은 각 가정으로 물이 공급될 때까지 남아 있게 되어, 수돗물 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러 단계 정수과정을 거친 물은 배수지에 저장되어 각 가정에 공급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각 가정에 도착한 물은 사용 후 하수가 되어 종말처리장으로 모아지고 비슷한 정수과정을 거쳐 서해 바다로 보내진다. 햇빛에 증발된 바닷물은 구름이 되었다가 비가 되어 팔당호에 내리고 다시 정수과정을 거쳐 안산의 각 가정까지 도착하는 수돗물이 되기까지 순환 과정은 무한히 반복된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흐린 물을 정수해서 다시 먹는 셈이다. 아끼고, 함부로 오염시켜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호텔서비스 분야의 인력을 양성해온 한호전이 지난 3월 커피 박물관을 개관했다. 재학생들의 커피에 관한 관심을 이끌고 커피의 역사와 종류, 기기 등 커피와 관련한 폭넓은 지식을 쌓게 하고자 문을 연 커피 박물관은 학생은 물론 일반인의 관람도 가능하다.

박물관에 들어서면 커피콩을 가루로 만드는 대형커피밀과 그 옆으로 소형, 벽걸이, 휴대용 등 다양한 종류의 커피밀이 눈길을 끈다.

커피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전국적으로 번

진 다방의 모습까지 사진자료로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기기들, 로스팅 전의 열매인 생두와 로스팅한 열매인 원두를 직접 볼 수 있다. 또한 전국의 커피 매장수와 매출현황을 보여주는 그래프와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는 실습실도 갖춰져 있다. 독일과 일본, 터키의 로스팅 기기는 세계인들의 커피 사랑이 얼마나 오래되고 지극했는지를 보여준다. 박물관 안쪽으로 들어가면 50여 그루의 커피나무가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자라고 있다. 커피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 사람들의 오감을 자극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커피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싶다는 한호전 커피 박물관은 ‘커피 관련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멀리 가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커피에 관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육광심 이사장의 뜻이 담겨있다.

관람을 원하는 단체는 사전 예약을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개인은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하다. 개장시간은 오전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커피는 6~7세기 경 에티오피아의 ‘칼디’라는 목동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다고 알려졌다. 염소들이 빨간 열매를 먹

고 흥분해 날뛰는 것을 목격한 ‘칼디’는 자신도 이 열매를 먹어보게 되었고 그 결과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이 사실을 이슬람 사원의 수도원의 수도승에게 알렸고, 수도승들의 수양에 도움이 되는 신비한 열매로 알려지면서 여러 사원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9세기 무렵에는 커피 열매를 끓여 그 물을 마시거나 열매의 즙을 발효시켜 알코올음료로 만들어 마셨고 이 음료는 13세기 이전까지는 성직자들만 마실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1895년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고종황제가 처음 커피를 마셨다고 전해진다. 민간에서는 독일인 손탁이 정동 구락부에서 커피를 팔기 시작한 후 1920년대부터 명동과 충무로, 종로 등지에 커피점이 생기면서 소수의 사람이 즐기던 것이 8.15 해방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미군부대에서 원두커피와 인스턴트커피가 공급되면서 대중들이 즐기는 기호음료로 자리 잡게 되었다.

• 문의 : 재단법인 한국호텔관광전문학원 ☎ 031-482-6013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안산가구! 보러가구! 사라가구! 제1회 안산상록수 가구거리 문화축제 열려

상록수가구거리협회는 오는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안산상록수체육관 및 가구거리 일대에서 '안산가구! 보러가구! 사라가구!'를 슬로건으로 제1회 가구거리 문화축제를 연다.

행사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상록수체육관 내 2,267m²(686평)에 가구를 전시하며 다양한 무대행사와 부대행사를 마련했다. 또한 매일 선착순 100명에게 사은품을 제공하고 다양한 경품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4월 11일 개막식에는 개그맨 송중근, 가수 홍진영, 가수 국가대표 등이 출연하고, 4월 12일은 가수 워크와 비보이 댄스퀴드가 출연해 축제 분위기를 한껏 띄울 예정이다.

이외에도 깜짝 경매, 캐리커처 체험, 어린이 놀이존, 다문화 먹을거리 센터 등을 운영해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이학규 상록수 가구거리대표는 "지난해 안산시에서 일어난 가슴 아픈 일과, 인근의 대규모 가구단지 입점으

로 인해 상록수 가구점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축제는 많은 시민들께 상록수 가구거리를 홍보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다.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노마진으로 판매하는 가구도 구입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3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산특화거리로 지정된 상록수가구거리는 브랜드 가구 전문점부터 공장형 매장, 인테리어 매장, 침구 매장 등 42개의 다양한 가구업체가 입주해있다. 또한 고급 명품가구부터 모던가구, 엔틱가구 등 가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행사 기간 중 축제장을 찾는 시민들은 상록수체육관과 상록수운동장, 상록중학교 등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

• 문의 : 상록수가구협회 (☎ 031-439-1607)

김은미 명예기자 (jami34@hanmail.net)



안산은 지금 풍미작렬(風味炸裂) 24시간 열려 있는 맛집... "전통과 정성을 담았어요" 와돈 생삼겹육개장



'2014 전국 테마음식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받으며 '최고 맛집'으로 선정된 '와돈 생삼겹육개장'을 찾았다.

월피동 시낭운동장 옆 사거리에서 옛 방식을 고수하며 육개장을 만드는 '와돈 생삼겹육개장'은 불황을 이겨내며 한자리에서 13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안산 맛집이다.

정복문 대표(57세)는 반월공단에서 20년 동안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틈틈이 창업을 구상해오던 중 영세 제조업체가 부도 확률이 높은 점을 감안해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식업을 선택했다.

정 대표는 자신과 같은 시대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baby boomer) 세대가 겪은 고도의 경제성장과 1997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을 시작으로 '세대공감'을 이야기한다.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이 정년 퇴직하고 음식점을 개업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10년 이상 살아남는 식당은 별로 없다. 개업 후 성공 확률은 채 10퍼센트가 되지 않으며, 2~30퍼센트는 소소하게 유지해나가고, 남은 60여 퍼센트 중에 2년 안에 문을 닫는 곳이 허다하다고 한다.

2003년에 개업해 한 자리에서 10년 넘게 단골을 유지하면서 경영을 해 나갈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메뉴 개발 등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깔려 있다.

정 대표는 작년 8월에 새로운 도전을 했다. 생삼겹과 전주콩나물국밥을 주 메뉴로 해오던 아이템을 생삼겹과 육개장으로 바꾸면서 상호도 변경했다. 개업 당시 안산에 유일하게 인조잔디가 깔려있던 시낭운동장에서 축구를 즐기던 동호회 회원들이 와돈과 일동으로 분산되었고, 세월호 여파로 예약 건수가 연달아 취소되면서 음식점은 경영난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신안산대학교 외식경영아카데미 2기 수료생인 그는 음식 사이클과 경기침체 등의 사회변화를 인식하고 새로운 메뉴인 육개장을 선택했다. 신메뉴에 정성을 보태 선조들이 해오던 옛날 방식으로 육개장을 만들어 고객의 입맛을 잡았다.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단위 손님을 위한 하얀 육개장도 매운 것을 싫어하는 손님에게 인기 메뉴다.

뿔뿔 뺀 국내산 우족을 뽀얀 국물이 우러나도록 40시간 끓인다. 3시간 동안 끓여낸 양지와 흥두께 육수를 더해 국물을 만들어 이 둘을 잘 배합한다. 소 염통부위의 깨끗한 기름을 녹여 만든 고추기름에 고춧가루 다진 마늘 등을 넣은 양념을 만들어 사용하며, 소금을 사용하지 않고 조선간장으로만 간을 해 염도를 줄였다. 이것이 부드럽고 진한 맛이 나는 육개장 비법이다.

와돈 생삼겹육개장은 깔끔하고 깊은 국물맛에 별다른 흥

보가 없어도 입소문을 탔다. 시낭운동장과 노적봉에서 축구와 배드민턴 등 운동을 하고 밤늦게 찾는 동호회 회원들도 많다. 그래서 이곳은 24시간 운영을 한다.

정 대표는 "육개장이라는 메뉴로 테마음식 경연대회에 참가해 상을 받아 참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맛집'이라는 현판을 볼 때마다 자부심이 생기고, 동네 손님들도 예전보다 많아졌어요."라고 말한다.

노적봉 배드민턴 클럽 회원 김익현 씨(59세, 성포동)는 "운동 끝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들르는데 음식이 질리지 않아요. 오늘은 근처 주말농장 가는 길입니다. 막걸리 한 잔 기울이기에 딱 좋은 날씨네요."라며 챙 넓은 밑짚모자를 집어 들었다.

찾은 야근으로 입맛 없을 때,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이 생각날 때, 육개장 한 그릇에 담긴 정성으로 활기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

• 문의 : 와돈 생삼겹육개장 (☎ 031-402-4985)

• 주소 : 상록구 시낭로 37-1(월피동 464-9)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나도 예술가다”

‘예술공감-공단에서 예술하기’ 전시회 열려



정운기 작가와 시민들이 먹그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타티아나 씨(왼쪽)가 축하객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극 ‘고독하고 위대한 여정’을 공연하는 배우들

안산스마트허브 문화재생 사업 ‘예술공감-공단에서 예술하기’ 전시회가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전시동에서 열렸다.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모에 선정된 안산스마트허브 문화재생 사업은 단절된 산업단지의 노후한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근로자와 지역주민 중심의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 산업단지와 지역사

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이 진행해온 사업이다. 노자의 도덕경으로 인문학의 기초를 다지는 ‘노자, 맨발로 공단에 오다’, 나무를 버닝펜으로 태워 글자나 그림을 새기는 ‘지침뚝딱공작소’, 다양한 방식의 글쓰기로 내면을 치유하는 ‘치유의 글쓰기’, 근로자의 일터와 일상을 재구성해 현대 문민화로 표현하는 ‘묵향의 딸’, 토론을 통해 대본을 만들고 발표자 개인의 생각과 언어로 표현하는 ‘연

극, 공단의 일상을 사진으로 담아내는 ‘사진교실’을 수강한 근로자 100여 명이 6개월간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 익힌 결과를 전시와 공연으로 발표했다.

공단의 하늘과 야경, 작업복을 입고 기계를 작동하거나 용접모를 쓴 근로자의 일상이 담긴 사진, 회사 외벽에 설치된 대형 소나무 조형물을 담은 사진 속에서 공단은 예술로 변화하고 있었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예술작품은 일터에 아름다운 예술을 입히기 위해 진행된 공공예술 프로젝트로 책임작가와 근로자들이 교육과 제안, 토론으로 함께 고민하고 구상하며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안산문화재단 김용호 총괄기획팀장은 “이 작품이 공단에 있는 기존 조형물과 다른 것은 근로자가 중심이 되어 작가와 협업으로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것”이라며 “어렵게 생각했던 미술과 공공예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근로자들이 일터에 대한 애착을 더 느끼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연극 라디오극장에서 한스 역을 맡은 배우 최길용 씨(43세, 초지동)는 “직장생활을 20년 가까이 했지만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간직하며 살다가 배우로 활동한지 5~6년이 되었다.”며 “배우로 무대에 서는 것이 삶의 원동력이 된다.”고 말했다. 눈으로는 전시된 작품을 감상하며 동시에 배우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야기의 줄거리를 쫓아나가는 관객들 속에서 작가와 배우로 우뚝 선 이들의 얼굴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작품 전시를 축하하러 온 신정숙 씨(47세, 선부동)는 “사진, 문인화 등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지치고 힘든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ASAC 신춘음악회 ‘Remember Forever’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는 4월 18일(토) ASAC신춘음악회 ‘Remember Forever’를 연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자는 뜻의 ‘Remember Forever’를 부제로 한 공연을 통해 커다란 아픔을 겪은 안산시민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산울림’이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라면 ‘김창완밴드’는 현재이고, 미래다!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의 기념비적인 록 그룹 산울림의 리더로 꾸준한 활동을 통해 대중음악과 문화계 전반의 입지를 굳혀온 김창완이 새로운 음악과 함께 2008년 결성한 ‘김창완밴드’.

김창완밴드의 사운드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솔직하고 순수한 사운드를 들려주며, 삶에 고하는 메시지와 연민을 잃지 않는 정서를 듬뿍 담고 있다.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이야기를 노래로 구현하지만 듣는 이로 하여금 잊고 있었던 꿈을 꾸게 만드는 힘,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 본연의 궁극적인 목표를 순수해서 아름다운 열정으로 노래하고 있다. 아티스트 김창완의 폭 넓은 예술성을 토대로 활동하고 있는 김창완밴드는 세대의 경계도 현실의 경계도 무너뜨리게 만드는 특별한 매력으로 행복을 전하는 현재진행형 밴드이다.

최근 3집 앨범에 실린 곡들과 김창완밴드의 대표곡 등을 모두 보고 들을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진다.

하늘의 소리, 신비로운 음색으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생황연주가 ‘김효영’

김효영은 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생황연주가다. 생황이 가진 본연의 소리를 가장 잘 표현해내는 연주자로, 전통음악은 물론 클래식이나 현대음악, 뽕고를 연주한다. 컨플루언스 앙상블, USP 챔버오케스



트라, 라 벤타나 등 협연을 통해 서양악기와와의 단순한 크로스오버를 넘어 새로운 클래식 무대를 선보이며 현대 클래식 분야에 생황만의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했다.

김효영 앙상블은 김효영의 생황을 중심으로 피아노와 첼로, 대금, 단소가 함께 어우러져 환상적인 앙상블을 선사하는 팀으로, 김효영 생황콘서트 ‘환생’을 계기로 결성되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장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생황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측면을 살린 레퍼토리뿐만 아니라, 생황이 가진 신비롭고 편안한 음색을 이용하여 누구나 쉽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대중적인 레퍼토리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으며, ‘신기한 악기’로만 인식되던 생황과 생황음악을 관객에게 소개하고 있다.

스캇의 여왕, 한국 재즈 보컬의 정점 ‘말로’

말로는 힘과 섬세함을 함께 갖춘 한국 재즈 보컬의 정점이다. 가장 예술적이면서도 가장 한국적인 보컬로 평가받는 말로는 한국에서 재즈 보컬의 지위를 단순 가수에게 ‘목소리 연주자’로 격상시킨 주인공이다. 객석을 압도하는 말로의 스캇(의미 없는 음절로 즉흥적으로 노래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놀라운 음악적 경험이다. 재즈의 보편성과 한국적 재즈의 특수성을 함께 탐색하고 수렴해가는 말로의 음악적 여정은 어느 누구도 가지 못한 새로 길이다. 재즈가수로는 드물게 시대의 상실과 고통을 담아낸 세월호 추모곡 2곡과 함께 본인의 대표곡들로 꾸며 재즈 보컬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여성 콰르텟 ‘정가(正歌)앙상블 소울(Soul)지기’

정가앙상블 소울지기는 2012년에 세 명의 여창 가객을 중심으로 결성되었으며, ‘정가’의 대중화와 현대화에 노력하고 있다. 조선 후기 식자(識者)들의 노래를 바탕으로, 그 곡조를 모티브로 하여 새로운 노래를 만들고, 노랫말을 쉽게 풀어내어 화성 등의 서양음악 기법을 사용한다. 2014년 210한국음악프로젝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14년 4월 첫 EP음반을 발매했다.

정가앙상블 소울지기는 조선 후기와 현재의 시간차이와 변화를 인정하고, 현대의 언어와 우리에게 더 익숙한 악기를 사용해서 만든 곡을 통해, 정가가 더 이상 우리음악을 하는 사람만이 지켜야하는 ‘전통’이 아닌, ‘일상이 되는 음악’이 되기를 바란다.

- 일 시 : 4월 18일(토) 오후 7시
- 장 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 관람료 : R석 3만원/S석 2만원
- 연 령 : 8세 이상
- 문 의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 080-481-4000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백운공원' 이야기



백운공원 정상에서 바라본 안산시내 전경.



2009년 부터 추진되어온 백운공원의 명품화 사업으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2.7km 황토둘레길, 벚꽃길 등 명품공원으로 발돋움

백운공원 팔각정을 오르는 길에 진달래가 활짝 피었다. 군데군데 노란 개나리가 입을 벌리거나 수줍은 듯 봉오리를 머금었다. 밝은 햇빛이 내리쬐는 날, 팔각정에 서니 안산시의 모습이 넓게 펼쳐진다. 저 멀리 그리고 가까이 흰한 속내를 드리운다.

백운공원은 단원구 원곡동 산 100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중소기업연수원 건너편에 공원 입구가 있다. 백운공원의 가장 큰 장점은 팔각정에서 안산시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백운공원은 1990년 준공된 안산시에서 3번째로 조성된 공원이다. 안산시민공원이라는 명칭에서 안산문화원 지명위원회 자문을 얻어 2010년 백운산 이름을

따와 백운공원으로 바꿨다. 백운공원을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다. 중소기업연수원 맞은편 길과 백상각(종량제봉투판매소), 골프장, 신안산대 등에서도 오를 수 있다. 팔각정을 가장 빨리 오를 수 있는 길은 백상각 쪽에서다.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되어온 백운공원 명품화 사업으로 황토둘레길이 조성되었다. 둘레길은 약 2.7km로 황토를 밟으며 산책할 수 있다. 천천히 풍경을 즐기며 둘레길을 돌면 한 시간 정도 걸린다. 황토 둘레길 가장자리에는 나무 울타리가 둘러져 있어 더욱 정답다. 백운공원에는 황토둘레길 만큼이나 정다운 길이 또 있다. 공원 주차장 쪽에서 팔각정을 향하면 만나게 되는 나무계단 오르는 일도 즐겁다. 소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솔향기도 편안함을 더한다.

또한 팔각정 인근 다른 봉우리에 세워진 정자 쉼터에서는 안산 신도시를 훤히 내려다 볼 수 있다. 정자 쉼터에서 가족과 한가로운 주말을 보내던 가족은 "팔각정보다 조금 더 높

은 위치에 있어 안산시 여기저기가 더 잘 보인다. 모처럼 자연에 나오니 기분이 좋다."며 웃음 꽃을 피웠다.

자귀나무 쉼터, 둔덕갯향 나무쉼터, 정자쉼터, 전망대 등 예쁜 이름의 이정표들도 눈에 띈다. 원곡동에서 왔다는 70대 노부부가 팔각정 앞 벤치에서 따사로운 햇빛을 받고 있다. 백상각 쪽에서 올라온 노부부는 '어느새 숲이 이렇게 자랐다'며 봄의 기운을 마음껏 느꼈다.

연수원길부터 공원입구 길목에 가로수로 심어진 벚꽃이 이제 곧 꽃망울을 터뜨릴 것이다. 산벚꽃길로 유명했던 이 길은 아름다운 벚꽃을 감상하는 시민들로 북적인다. 2012년 백운공원에 추가로 심어진 300그루 벚나무가 꽃을 피울 무렵이면 백운공원은 벚꽃이 아름다운 명품공원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성태산 도롱구렁숲, 도롱뇽을 지키는 일동 엄마들
"도롱뇽이 살 수 있게 환경을 지켜주세요"

일동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김금옥 씨는 성태산 연못에 올라오자마자 양말부터 벗고 연못에 들어가 도롱뇽 상태부터 확인했다. 일동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생태수업을 진행하던 엄마들은 요즘 자주 도롱구렁 생태숲을 찾는다. 3월 산란기가 되면서 많은 도롱뇽들이 이곳에 알을 낳기 시작했는데, 연못의 물이 자주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금옥 씨는 "3월에는 도롱뇽들이 알을 낳고 올챙이들이 놀 수 있는 물이 꼭 필요해서 걱정하며 지켜보다가, 요즘은 매주 한 번씩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태 양성파충류연구소 김은영 연구원의 도움으로 일동 엄마들은 매주 월요일 오후에 연못의 수온과 수질, 물 높낮이, 주변환경변화를 꼼꼼히 체크하며 도롱뇽과 알의 상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도롱뇽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던 일동 엄마들이 성태산 도롱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건 3년 전부터다. 마을만들기 강의에서 동네한바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성태산 연못에 많은 도롱뇽들이 서식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는데, 그 뒤 지역아동센터와 협력해 이곳을 어린이와 함께 가꾸는 생태학습장으로 디자인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2013년에 만들어진 달팽이 자연체험학습장은 자연식생과 물의 순환체계를 복원하면서 아이들이 도롱뇽을 관찰하기 편하게 만들어진 생태공원이다.

윤승진 씨는 연못에서 뒤집어 있는 도롱뇽을 보며 안타까워했다. "저번 주에는 위험에 처한 도롱뇽 20마

리를 생수와 기포기를 넣은 수조에 넣어 집에 데려가 5일 정도 키웠는데, 이틀 정도 지나니 힘이 세지면서 활발하게 움직였다. 그런데도 4마리가 죽었다. 정말 도롱뇽들이 1급수에 사는 아이들이 맞나보다. 집 수조에서 물을 3번째 갈아주고 나서부터는 뿌연 물이 맑게 변했다."고 말했다.

체외수정을 하는 도롱뇽은 야행성이어서 주로 밤에 활발하게 움직인다. 김미향 씨는 "지난 주에는 밤에 아이들을 데리고 연못에 올라와서 암컷 도롱뇽 주위를 수컷 도롱뇽 여러 마리가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기도 했다."며, "이곳에 200마리 이상의 도롱뇽이 서식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환경이 나빠지면 내년에는 도롱뇽이 오지 않을까봐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도롱뇽들은 2월 말부터 3월까지 산란기를 거쳐 알을 낳는데, 부화된 알은 40일 동안 연못에서 올챙이로 지내다가 20~30일 사이에 성체가 되어 산으로 올라간다고 한다. 지난 3월 9일 연못 모니터링에는 도롱뇽 알집 60덩이와 북방산개구리알집 7덩이, 임신한 도롱뇽 1마리와 수컷 도롱뇽 9마리, 포섭중이 개구리 2쌍과 성체 개구리 2마리를 확인했다고 기록돼 있었다. 김 연구원은 알 한덩이에서 약 80마리의 올챙이가 태어나며, 도롱구렁숲에는 60마리 이상의 암컷도롱뇽과 120마리 이상의 수컷도롱뇽이 현재 살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며 도롱뇽이 잘 살 수 있게 환경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숲과 함께하는 사람들

‘시화호생명지킴이’ 김미옥 씨에게 듣는 생태이야기

시화호생명지킴이는 안산지역의 생태 공간을 찾아다니며, 생태 건강도를 측정하고, 건강한 숲이 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하며 월 1회 ‘안산 나들길’을 걷는다.

그 첫 발걸음으로 지난 3월 25일에는 ‘안산식물원과 노적봉’ 코스를 답사한 시화호생명지킴이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김미옥 씨를 만났다.

Q) 이번 나들길 걷기는 어떤 코스로 진행되었나?

A) 이른 봄이라 야외의 봄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안산식물원에서 봄꽃을 관찰하고, 성호공원을 지나 노적봉 둘레길을 걷고, 경일초 앞에서 노적봉 정상을 오른 후 단원미술관 방향으로 하산, 안산식물원으로 돌아오는 약 3km 거리를 걸었다.

Q) 이번 나들길 걷기에서 얻은 게 있다면?

A) 이번 걷기 중에 주요하게 관찰된 지역은 세 지점이다. 첫째, 안산식물원은 해안을 면한 안산의 특징을 잘 살려 남부의 식물들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있어 지역 식물원으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식물설명에 오류가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식물에 대한 이론이 계속 바뀌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정해나가야 식물학습장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호공원 구석에 있는 작은 습지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한국산개구리로 추정되는 올챙이들이 살고 있었다. 수질이 좋아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간섭하지 않으면 양서류 산란장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장소는 노적봉 정상에서 단원미술관 방면으로 내려가는 등산로이다. 경사도가 심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여 토양의 유실이 심하고, 식생의 파괴가 지속되고 있다. 장마에 흐른 물길로 인해 땅이 파였는데 매년 그 깊이가 깊어지고 있다. 통나무로 계단을 만들어 정해진 길로 이동하고 파괴된 식생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등산로도 휴식년제를 가져 폐쇄하여 등산로를 줄여야 한다.

Q) 노적봉에 있는 음나무가 갖는 의미는?

A) 노적봉은 오래된 소나무숲과 음나무가 명물이다. 노적봉의 음나무는 보기 드문 노거수로 수명을 다하였지만 여

전히 아름답다.

음나무(Kalopanax septemlobus (Thunb.) Koidz.)는 두릅나무과의 낙엽활엽수로 쓸모가 많아 어린잎은 ‘개두릅’이라 하여 식용하고, 가지는 약재로 사용하였으며, 귀신을 쫓는 가장 강력한 나무인데 토양이 비옥한 곳을 좋아하며 내륙보다는 해안가에서 더 많이 관찰된다. 노적봉이 예전에는 더욱 비옥하고 해풍의 영향권에 있었다는 뜻이다. 간적으로 바다는 멀어지고, 도시화에 따라 건조하고 토양은 파괴되어 노적봉이 더 이상 음나무의 서식지로서의 조건은 상실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Q) 시화호생명지킴이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A) 시화호생명지킴이는 시화호 유역의 다양한 환경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시화호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시화방조제 건설 이후 시화호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과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Q) 생태안내자 활동을 하면서 보람 있었던 일은?

A) 시화호생명지킴이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습지학교가 벌써 4년차로 열리고 있다. 매년 새로운 청소년들이 습지의 중요성과 시화호에 대해 알아가며 캠페인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 올해는 3년 이상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과정도 진행하게 되어 앞으로 시화호와 습지를 지역에 알리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의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습지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은 큰 기쁨이고 보람 있는 일이다.

Q) 생태안내자로서 안산 시민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A) 시화호는 시화방조제 건설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얽혀 있는 우리나라 환경문제의 대표적인 이슈가 되는 곳으로 안산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요구된다.

근래에는 백조의 호수라는 이름으로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철새들의 주요한 서식처이며 중간 기착지가 되고 있고 조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시화호 내에는 새로 갯벌이 생기는 등 다이내믹하게 변하는 곳이다.

안산시는 이곳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속가능



시화호생명지킴이 회원들이 성호공원 습지를 관찰하고 있다.

한 자연환경과 서해안의 생태관광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우리 시민들이 변화하는 시화호의 다양한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가기 바란다.

• 문의 : 시화호생명지킴이 (☎ 031-401-5601)

www.shihwalake.org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사람과 생명이 공존하는
숲의 도시, 안산



“엄마, 내일 학교에서 영어마을 가요”
신나는 영어교실, ‘안산화정영어마을’



안산화정영어마을 전경

영어수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안산화정영어마을은 안산시가 설립하고 안산대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공공교육기관이다. 2015년 새 학기를 맞이하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일 통학형 정규 프로그램 일정을 시작했다. 5학년 영어수업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26개 학교가 신청해 12월까지 예약된 상태이다. 3월 31일 현재 7개 학교 535명의 학생이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지난 3월 27일 선부초등학교 학생 50여 명이 각 클래스에서 재미난 영어수업을 체험했다. 음악(Music)방에서는 각자 마라카스, 젼베, 귀로 등의 타악기와 박수, 목소리, 책상, 의자 등 주변 사물의 소리를 이용한 라이브 루핑을 만들었다. 생태(Ecology)방에서는 덩고, 코알라, 에키드나, 테즈매니안 데빌 등 호주의 특이한 동식물의 생태를 알아보고 햄스터와 뱀 등의 동물을 만져보고 교감하며 색다른 경험을 즐겼다. 이외 과학(Science), 극장(Cinema), 문화(Culture), 예술(Art)방에서 각 10여 명의 학생들이 그룹을 지어 활동했다.

지난해 관내 39개 초등학교에서 9,171명의 학생들이 영어마을을 다녀갔고, 올해에는 약 10,200여 명의 아이들이

맛이할 계획이다. 학교 영어 교육을 대신하고 있는 정규 프로그램 이외에도 세계의 여러 행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토요 프로그램과 관내 초·중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W.E(Whole English)프로그램, 중학생 토론(Debate)반, 성인 기초, 성인 회화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안산시 6개 도서관(갑골·상록어린이·관산·중앙·원고잔 도서관, 안산시 평생학습관)에 안산화정영어마을에서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프로그램과 뛰어난 강사를 직접 파견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영어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영어독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매년 어린이영어연극발표회와 영어팝송콘테스트, 다문화 캠프, 화정동 주민 어울림 한마당 등을 진행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영어마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몇몇 영어마을이 문을 닫으면서 영어마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영어마을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 주요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안산화정영어마을 손기표 원장은 “다른 영어마을은 내리

막길을 걷는 가운데 안산화정영어마을이 오르막길을 걷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며 “안산시와 안산교육지원청의 지원, 관내 초등학교와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관내 초·중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영어체험학습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색 없는 교육을 지양하고 안산화정영어마을만의 다문화, 환경, 나눔(3C-Culture, Conservation, Community)의 세 가지 주제로 테마 중심 영어교육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별 단체로 접수하는 정규 프로그램의 경우 접수 시작 일주일 만에 올해 교육 차수가 마감될 만큼 인기를 모으고 있다. 안산화정영어마을에서 안산시 초등학교 학생들이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고 영어를 즐길 줄 아는 글로벌 인재가 되기를 기대한다.

• 문의 : 안산화정영어마을 (☎ 031-484-7296)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우리 손으로 그린 우리 학교 통학로 벽화 “상상의 세계가 펼쳐져요”



하곳길에 벽화를 보며 즐거워하는 학생들

따스한 햇살이 빛나는 3월 26일 하곳길. 삼삼오오 즐거운 아이들이 집으로 향한다. 광덕산 줄기에 자리 잡은 덕인초등학교는 고지가 높은 편이다. 학교 본 건물을 빠져 나와 정문으로 나오려면 3층의 계단을 내려와야 한다. 그런데 밋밋

요.”라며 얼굴에 웃음이 한 가득이다. 학생들은 벽화가 그려지기 전 발자국과 낙서로 지저분했던 계단 통학로가 깨끗하게 되어서 너무 좋다고 말한다.

덕인초등학교는 밝은 교육환경 만들기를 위해 계단 통학

로를 아이, 동물, 식물 등의 그림으로 밝고 화사하게 꾸몄다. 벽화 그리기 작업은 전서연 작가팀 뿐만 아니라 6학년 학생들과 교장, 교감을 비롯한 학교 교사들도 함께 참여하여 덕인초등학교를 위한 벽화그리기에 학교 구성원 모두가 힘을 보탰다.

벽화그리기 작업을 하는 동안 꽃샘추위가 방해하였음에도 전서연 작가는 “무엇보다 학생들이 즐겁게 등교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이 마련될 수 있어 좋다.”며 기쁨을 표시했다.

또한 추운 날씨에 차가워진 손을 녹여가며 함께 벽화작업에 참여한 6학년 학생들은 “우리가 스스로 벽화에 색칠을 하니 우리를 스스로 예쁜 벽화를 더욱 사랑하고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학생들의 하곳길이 무척 즐거워 보인다. 벽화를 보며 서로 이야기 하고 서로 상상의 나라를 펼쳐며 웃는다. 밝고 화해진, 예쁘게 꾸며진 계단을 오르내리며 그들만의 아름다운 세계를 꿈꿔가길 바라본다.

• 문의 : 덕인초등학교 (☎ 031-486-1912~3)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우리 지역의 동아리

배드민턴 동호회 '하모니클럽' 배드민턴의 매력에 빠지다... "올해로 16년 째"



하모니클럽 회원들이 전용 배드민턴장에 모여 친목경기를 치르고 있다.

강스매싱을 날리며 배드민턴 동호회 하모니클럽 회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단원구 원곡동 백운공원에 위치한 배드민턴장에서 하모니클럽 동호회 회원들을 만났다.

하모니클럽은 지난 2000년 배드민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동호회를 꾸리기 시작해 현재 5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함께 배드민턴을 치는데 매일 모이는 회원은 대략 30여 명이다. 낮에 운영되는 동호회인 만큼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주야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회원들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렇게 짬을 내서 운동하는 시간이 참 좋다."고 입을 모은다. 또 "오랜 전통을 유지하며 가족 같은 분위기로 서로에게 활력을 주며 스트레스를 푸는 건강한 생활체육"이라며 자부심이 크다.

배드민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실내 운동으로, 여가선용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다. "한 번 시작하면 배드민턴의 매력에 빠져 헤어내기 쉽지 않다."고 회원들은 말한다.

아마추어에게 전문가용 배드민턴 채와 셔틀콕을 기꺼이 내준 하모니클럽 회원의 배려로 필자와 사진 기자도 10여 분 운동을 했다. 땀이 비 오듯 흘렸지만 운동하며 느끼는 쾌감은 최고였다. 10분만으로도 배드민턴의 매력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하모니클럽 회원들은 대부분 셔틀콕 속력이 200km/h에 달하는 베테랑 실력을 갖춘 회원들로, 활동하려면 월 20,000원의 회비를 내야한다. 레슨을 원하면 지도자가 개

별적으로 레슨도 해준다. 월 회비는 배드민턴장 이용료와 음료수 등 운동 시 필요한 경비로 충당된다.

하모니클럽은 두 달에 한번 월례회로 모여 친목 계임을 하며 하모니 운영에 관한 회의도 진행한다. 안산생활체육협의회 대회, 시장기 대회, NH배 등 다양한 대회를 통해 실력을 인정받고 즐거운 동호회로 활동하고 있다.

스마트허브에서 두루치기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미화 회원은 "스트레스를 함께 풀 수 있는 곳이다. 일하다 여기에 올라와서 신나게 운동하고 다시 내려가 생업에 종사한다.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운동할 때는 운동하고 다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화 회원은 "배드민턴을 시작하지 1년 3개월이 되었다.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레슨을 받으며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고 한다. 하면 할수록 배드민턴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고 누구보다 더 배드민턴을 사랑하고 즐기게 되었다고 한다.

하모니클럽 동호회는 젊은 사람 위주가 아닌 40~60대를 위한 동호회다. 노령화 사회에서 중장년층의 여가선용을 위해 꼭 필요한 클럽이라고 귀땀한다. 계임을 하는 운동이라 승부욕도 생기고 게임의 묘미를 느끼며 할 수 있어 좋다고 한다. 운동은 거의 복식으로 이뤄지는데 뱃이 호흡을 맞춰 하나가 된다는 것도 배드민턴의 장점이다.

이선희 명예기자(iamyou70@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hanmarus@naver.com)



캄보디아에서 온 속파오시다 씨의 안산살이 "한국 사람들이 잘 사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



다문화 강사로 활동하는 캄보디아 이주 여성 속파오시다 씨(34세, 사2동)를 원곡동 모두도서관에서 만났다.

속파오시다 씨는 2007년에 남편 박한수 씨(48세)를 만났다. 그리고 한수 씨를 만난 지 일주일 만에 결혼을 결심하고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남편과의 만남은 운명"이라고 말하는 그녀의 밝은 웃음에는 행복이 가득 묻어 있었다.

4남5녀 중 막내였던 속파오시다 씨는 아홉 살에 엄마를, 스무 살 때는 아버지를 여의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프놈펜에서 힘든 노동일로 생계를 꾸렸다. 미용사로 일하면서도 영어를 공부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던 그녀는 '운명 같은' 남편을 만나며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다.

"한국에서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한국에서, 다문화 도시 안산에서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진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YMCA 등

에서 지원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문화강사 양성 과정에 입문하게 되었어요. 모두도서관에서 독서지도사 양성과정을 기본반을 마치고, 지금은 고급반을 수강하고 있습니다."라며 "6개월 전부터는 조손가정 등에 연탄, 무료급식 봉사에 쓰일 수 있도록 YMCA에 월 만 원씩 후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서로 다른 풍습에 대해 묻자 캄보디아에서는 막내딸이 결혼을 하면 친정부모와 함께 사는 풍습에 대해 얘기한다. 막내가 아니더라도 친정부모와 함께 사는 게 자연스러운 데 반해 한국에서는 결혼하면 시댁에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결혼문화에 적응하기 힘들었고 했다. 그렇지만 "간간하고 엄격한 시어머니께서 간장, 된장, 고추장, 김장 담그는 법을 직접 가르쳐주신 덕분에 한국 음식을 잘 하게 됐어요. 캄보디아에서 고추는 소스에만 사용하는데 저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에도 꼭 고추를 넣어야 맛이 나요. 그것도 청양고추를... 고추장이찌도 빼놓지 않고 담그는 저를 보며 이웃들이 한국사람 다 됐다고 말한다."며 웃는다.

속파오시다 씨는 모두 도서관에서 캄보디아 노동자들과 독서모임을 통해 이들에게 한국어와 문화·풍습을 가르쳐

칭찬합니다

'찾아가는 만원의 행복' 김진국 대표

기부와 봉사는 칭찬 속에서 자랍니다



구석진 곳곳마다 도움의 손길은 끝없이 이어져 있고, 그 가지 끝에 매달린 열매들처럼, 우리는 봉사라는 이름으로 한마음이 되며 인연을 이어간다. 그렇게 복지라는 것이 우리 곁에 다가와 안락한 생활을 주면 줄수록, 봉사는 동반자가 되어 이는 곧 아름답고 참다운 사회로 이어질 것이다.

비영리 단체 '만원의 행복'은 전국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또 홍보활동을 통하여 우수 자원봉사자들에게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봉사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다.

어르신들의 영정사진을 찍어주어 훈훈함을 보여주기도 하고 손끝으로 만나는 세상을 통하여 장애인과의 1:1 촬영 봉사를 하기도 한다. 아이들은 사진을 통해 기쁨을 얻고 따뜻한 마음으로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림을 그리게 된다.

올해는 소외된 분들은 물론 안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가족사진 찍어주기 행사를 준비 중이다. 가족사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50여 가구를 목표로 있다. 재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모습들이 아름답다는 평가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다. 예전에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좀 더 알고 칭찬함으로써 좋은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욱 낫다는 분위기다. 이웃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는, 믿음으로 가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 '만원의 행복' 김진국 대표는 "안산 시민 누구나도 참여하여 기쁨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는 것이 만원의 행복의 설립 취지"라고 말한다.

내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듯 내 가족, 내 이웃, 내 지역사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이 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나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키워지는 것이리라.

김선 명예기자 (ksumo9011@naver.com)

주며 책 속에서 상처를 치유 받도록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안산에 다문화 가족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이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는 그녀는 "캄보디아에는 도서관이 없어서 국민들 대부분이 독서를 하지 않아요. 저는 고국에 돌아가게 되면 고향에 도서관을 짓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이 잘 사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캄보디아에도 도서관이 많이 생겨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책이 주는 즐거움을 알아가면서 풍요로운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의 시간에 맞춰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발걸음을 재촉하는 속파오시다 씨의 진홍빛 코트에 봄 햇살에 내려앉았다. 봄별에 그녀의 꿈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른다.

신선영 명예기자 (woghk@hanmail.net)

‘ASV(안산 사이언스 벨리) 브라운 백 세미나’를 아시나요?

맛있는 점심식사와 함께 즐기는 유익한 강연, 소중한 만남



브라운백세미나에 참여한 시민이 이날 주제인 스마트폰을 보며 강의를 듣고 있는 모습

경기테크노파크는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인근 기업 임직원들과 안산 시민을 대상으로 유익한 강연과 맛있는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ASV 브라운 백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 참여 기관이나 기업들은 간략한 소개시간을 갖고, 참석자들은 제공된 점심식사를 하면서, 약 80분 간 전문가 강연을 듣고 자유롭게 교류하는 기회를 갖는다.

브라운 백 세미나는 지난해 1월부터 시작해 중소기업 지

원시책, 이슈동향, 기술 트렌드, 경영의 지혜, 자기계발, 건강, 문화예술 등, 매회 다양한 주제를 담아내어, 기업 경영주와 임직원, 유익한 강연을 찾아 듣는 안산시민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3월 27일 제21회 세미나에서는 ‘IT혁명과 미래 비즈니스’라는 주제로 IT문화원 김중태 원장이 강연했다. 김중태 원장은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등 여러 기관의 IT관련 자문위원과 기업의 IT컨설턴트로 활동한 대표적인 IT전문가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세상은 스마트 폰으로 대변되는 정보통신 기술 IT(information technology)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가히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IT가 어제와는 판이하게 다른 내일로 세상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시대에는 과거 30년간 PC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겪은 변화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속도와 폭으로 세상이 바뀌게 되고, 자동차도 엔진 대신 소프트웨어로 작동하는 스마트한 가전

제품으로 재탄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세계 굴지 자동차 업체 BMW, 벤츠, 아우디가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으로써 입증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이 자동차를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인 하나의 가전제품으로써 바라보기 시작했음을 나타낸다고 했다. 그는 또 스마트 폰을 이용한 음성 통역기술은 언어장벽을 허물고,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기 시작한 로봇은 애인이나 친구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3D 프린터는 소비자를 생산자로 탈바꿈 시킬 수 있다고 했다. IT혁명이 가져오는 변화 속에서 인간은 기계가 할 수 없는 영역인 창조와 가치판단, 감성부문을 파고들어야 한다는 말을 끝으로 강연은 끝났다.

오는 4월 10일에는 대한민국 남자 1호 출신 쇼호스트 김효석 교수가 ‘불황을 이기는 설득화법’을 알려준다. 24일에는 ‘유머 있는 사람과 일하고 싶다’라는 주제로 개그작가 신상훈 교수의 강연이 준비됐다.

세미나 참석은 테크노파크 ASV 입주 기업 임직원외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가능하다. 경기 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 사업공고란 안내에 사전등록하면 된다.

· 문의 : 경기테크노파크 (☎ 031-500-3089)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싱그러운 식탁은 주말농장에서 안산시, 주말농장 개장해

안산시는 지난 4월 1일 주말농장을 개장했다. 3월 26일 동산교회 1층 강당에서 열린 주말농장 사전교육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다. 짧은 아이엄마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주말농장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에 귀를 기울였다.

사동에 사는 박명호 씨(51세)는 “작년에 지인이 농사를 짓는 것을 보고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농사를 짓고 있는 형님네서 비료와 기타 필요한 것들을 챙겨왔다. 직장 가까우니 출·퇴근 시 수시로 들러 다양한 작물을 가꾸 이웃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강의를 진행한 남병한 실무관은 “개장을 4월 1일에 하는 것은 이즈음이 돼야 땅속 온도가 작물이 얼지 않을 정도로 확보되기 때문이다. 급한 마음에 미리 심으면 병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안산시가 운영하는 주말농장은 현재까지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단위



안산시가 운영하는 주말농장이 지난 4월 1일 개장했다.

농장 1,855가구, 화랑농장 315가구, 제2화랑농장 212가구, 신길농장 545가구 총 2,927가구가 참여해 주말을 자연과 함께, 가족과 함께 할 계획이다.

16.5m²의 작은 공간이지만 땅을 일구고 거름을 주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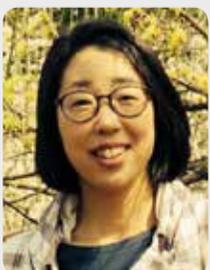
일 년 농사를 시작하는 기대로 한껏 부푼 도시농부들, 파종을 하거나 모종을 해 작물을 가꾸고,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는 과정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그 일련의 과정이 무엇 하나 허투루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올해 주말농장 경작자로 선정된 한상용 씨(51세, 고잔동)는 “머릿속이 복잡할 때 농장에 가서 작물을 가꾸다보면 잠시나마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기분을 느낀다. 내가 정성껏 가꾼 작물을 지인들과 나누는 것도 주말농장을 통해 얻는 재미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안산시가 운영하는 주말농장은 일체의 화학비료 사용을 금하며 다른 텃밭에 피해를 주는 작물(호박, 옥수수 등)과 월동작물(시금치, 봄동, 마늘, 양파 등)은 재배하면 안 된다. 경작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기자수첩

끝없는 이야기, 4월의 안산



세월호 관련 기사를 쓰다보면, 내 자신이 한없이 보잘것없어 느껴질 때가 많다. 쓸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 능력으로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보니 한 문장을 써 놓고도 몇 번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한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세월호 관

련 소식들을 도저히 취재소재로 쓸 수 없었던 나의 소심한 마음 때문일 것이다. 혹시 과거형 어머니 토시 하나에도 누군가 상처받을 수 있을까봐 걱정도 되고, 조금이라

도 잘못 기록했던 것들이 있을까봐 몇 번을 확인하고도 망설이게 된다. 학생에게 어떤 질문 하나 던져보려고 해도 어른인 내가 너무 부끄러워 결국 몇 번이나 포기할 때가 많았다.

무엇보다 세월호 기사의 행간에는 도저히 다 표현할 수 없었던 엄마아빠들의 고통과 흐느낌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다. 꽃피는 봄에 아이를 잃은 엄마들의 핸드폰에는 모두 한 두 개씩은 벚꽃이 활짝 핀 고정을 배경으로 밝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단체 사진을 볼 수 있다. 4월에는 단원고 주변 도로변과 올림픽기념관 근처에 벚꽃이 만발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이가 좋아하던 벚꽃이 세월호 엄마아빠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꽃이 되었다.

지난 1년 동안 세월호 촛불집회에 취재를 다니거나, 치유공간 이웃이나 분향소를 다니며 문득 문득 머릿속에 맴도는 노래 가사가 있었다. 가수 이승환이 부른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란 노래 중간에 나오는 ‘그대는 나에게 끝없는 이야기’라는 가사였다. 왜 아직까지 슬퍼하냐고 묻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속에 감춰 놓고 있던 대답이었다. 세월호 참사로 지식, 동생, 누나, 형, 친구를 잃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끝낼 수 없는 이야기가 겹겹이 숨어있었다. 아무 준비도 없이 갑작스레 이유도 없이 끝나버린 이야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고통에 신음했다. 치유란 어쩌면 그렇게 멈춰진 이야기를 우리 안에서 새롭게 다시 만들어 내는 과정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매번 실패하게 되지만, 늘 원점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일을 하지만, 끝없이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가 안산에는 흐른다. 수백만 개의 이야기가 매번 전례도 없이 우리 앞에 맴돈다. 그 끝없는 이야기 앞에서는 누구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매번 실패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서로를 보듬고 품는 길 밖에는 없는 곳, 그곳이 4월의 안산이다.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안산 경찰청 프로 축구단, 2015시즌 홈 개막전 승리

3월 29일, 충주 험멜 상대로 서동현 선수 헤딩 슈트... 1:0으로 이겨

안산 경찰청 프로 축구단이 '2015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홈 개막전에서 승리했다. 3월 29일 오후 4시 와~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즌 첫 홈경기에서 안산 경찰청 프로 축구단은 등 번호 20번 서동현 선수의 헤딩 슈트로 충주 험멜을 1:0으로 눌렀다.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와~스타디움에는 많은 팬들이 함께해 홈 개막전을 지켜봤고 입장 관객 수는 1만94명에 달했다. 경기장 입구의 팬 숍은 올해 처음으로 제작한 홈 레플리카 형태의 연간회원권 판매로 팬들의 눈길을 끌었고, 경기장 밖에서는 홈 개막전을 축하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려 팬들을 즐겁게 했다. 이회택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축구 관계자들도 홈 개막전에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날 경기는 전체적으로 안산 경찰청 프로 축구단이 주도권을 쥐고 풀어나갔다. 충주 험멜 팀의 최승호 선수가 전반

43분에 왼발 슈트를 날렸지만 전태현 골키퍼가 깔끔하게 막아냈다. 득점 없이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 들어 이흥실 감독은 공격 축구를 주문하며 선수 교체를 했다. 박희도, 배승진 선수가 빠지고 정혁, 송창호 선수가 들어왔다. 충주 험멜은 압박 수비를 펼쳤지만 안산의 득점을 막지 못했다. 후반 13분 송창호 선수의 크로스를 서동현 선수가 헤딩으로 연결, 충주의 골 망을 흔들었다. 안산은 선제골 이후 적극적으로 공격을 펼쳤지만 추가 득점은 하지 못했다.

이흥실 감독은 "첫 홈경기의 부담을 떨치고 공격적 축구를 해달라고 선수들에게 요구했지만, 몸싸움이나 여러 면에서 공격적인 상대 팀의 수비조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경기운영이 됐다. 그래도 후반전에 빨리 선수들을 교체 투입한 것이 결승골로 이어지는데 주효했다."고 말했다. 이흥실 감독은 이어 "5,9월에 제대하는 선수들이 있어 공격진이 없

어지지만, 훈련으로 대비해 공격, 수비를 아우르는 조직적인 면을 강화하겠다."며 축구단의 조직강화 방향을 설명했다. 헤딩슈트를 날려 팀을 승리로 이끈 서동현 선수는 "감사하다."는 말로 소감을 전하고, 오는 9월 제대를 앞두고 있지만 "오늘 승리 위에 승점이 계속 쌓이도록 몸 사리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경찰청프로축구단의 2차 홈경기는 4월 11일 오후 5시 울산대와 송실대 전에서 승리한 팀과 치르는 FA컵 경기다. 이어 4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이랜드와 정규리그 5라운드 맞대결을 앞두고 있다.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우리 동네 함께 가꾸어요

고잔2동 마을주민 안산천변에 꽃나무 심고 돌보기로



고잔2동 주민들이 안산천변에서 야생화를 심고 있는 모습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만드는 '커뮤니티 동네 숲'을 이루기 위한 작은 노력들이 모아졌다.

지난 3월27일, 단원구 고잔2동의 통장과 아파트 관리소장, 생활체육회장 등 마을주민 100여 명은 안산천변에 모여 율피교에서 안산교에 이르는 1.6km 구간에서 '수크령, 도라지, 라일락'등 꽃나무를 심어 아름다운 '숲의 도시 안산'을 향한 작은 발걸음을 뒀다. 이번 출발은 지역별 특색에 따라 자연공존, 치유, 해안휴양, 녹색가로, 공동체 등 5가지 테마를 가진 도시 숲을 만들어 15년 후인 2030년에는 안산시가 숲의 도시로 변모하기를 기대하며 시작했다.

고잔2동 주민자치회 송정희 부위원장은 "예전 어릴 적만 해도 집집마다 채송화나 분꽃, 과꽃, 맨드라미 등, 예쁜 꽃을 울타리 안에 심고 즐겼는데, 지금은 달라진 주거형태에 맞춰 마을 곳곳에 여럿이 볼 수 있는 화단을 가꾸고 공유하

고 싶다. 오늘은 꽃과 나무를 심어 안산천변을 아름답게 가꾸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휴식과 사색, 치유의 공간으로서 기능하는 미래형 '도시 숲' 조성을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고, 주민 스스로 관리하는 주민친화형 도시 숲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역 특색에 맞춘 숲의 도시 조성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다.

단원 뜰 생태체험농원 운영과 점포 앞 화분 내놓기 운동, 도심 속 정원과 꽃길 만들기, 옥상 정원 가꾸기, 교각하부 산책길 조성 등도 그 일환으로 추진된다. 식목일 전후에 지역 곳곳에 심는 나무와 조성되는 썬지화단에는 시 녹지과와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도시 숲 조성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백미란 명예기자(whity0218@naver.com)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econojin@naver.com)

'샘골 이야기 동산'으로 모여라

최용신기념관, 책놀이 프로그램 실시



최용신기념관에서는 지난 수십 년 간 구입해 소장하고 있는 어린이 도서를 활용해 주말 가족 관람객을 대상으로 '샘골 이야기 동산'이라는 독서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장경화 마술구연동화지도사의 진행으로 총 30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사전예약 없이 당일 관람객 대상으로 운영된다. 단, 현충일과 추석연휴는 쉰다.

프로그램 1부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 글 현상선/그림 송아지'를 구연동화로 들려준 후 2부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활용한 책 놀이로 진행돼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는 일제 강점기에 실제로 세워졌던 '샘골 강습소'를 배경으로 최용신 선생과 마을 주민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구연동화를 통해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 문의 : 최용신기념관 ☎ 031-481-3040
김은미 명예기자 (ami34@hanmail.net)

안산시의회 의원들, '나눔의 날' 봉사활동 실시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25일 선부경로식당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시의회 성준모 의장과 김재국, 김동수, 이상숙, 주미희 의원은 25일 오전 단원구 선부동에 위치한 '선부경로식당'을 찾아 3시간 가량 배식과 설거지,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봉사단체 '선민회'가 운영하는 '선부경로식당'은 지난 1998년부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도시락 배달 및 이미용 봉사도 실시하고 있다.

의원들은 이날 식당을 찾은 노인 등 이용객 90여 명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설거지와 청소 등의 뒷정리로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봉사를 마치고는 선민회 관계자들로부터 식당

운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성준모 의장은 "비록 길지 않은 봉사 시간이지만, 의회의 '나눔의 날' 봉사활동으로 인해 지역 사회에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욱 낮은 자세로 지역 사회에 복무하는 안산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매달 하루를 '나눔의 날'로 지정, 지역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급식봉사와 빨래봉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나눔과 소통을 실천하고 있다.

자료제공 : 안산시의회

100세 건강실천' 위한 야간운동교실

건강가족되는 지름길, 4월부터 함께 해요

안산시 상록수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오는 4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지역 내 공원 및 운동장 등 11개소에서 야간운동교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

야간운동교실은 안산시 생활체육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함께 연계 추진하는데,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산시 공원 및 운동장에서 주 2회~3회,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실시한다.

야간운동교실 참여 희망자는 운동 당일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실(481-5930)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야간운동은 장소마다 운동하는 요일과 시간이 다르므로 참여 전에 반드시 운동장소별 운영 일정표를 확인하고 참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 상록구 야간운동교실 운영 일정표

장 소	운영요일	시간	장 소	운영요일	운영시간
호수공원	월, 수, 금	20:00~21:00	노적봉공원	화, 목	19:30~20:30
석호공원	화, 목	20:30~21:30	성어공원	월, 수	20:00~21:00
반월공원	화, 목	20:00~21:00	성호공원	월, 수	20:00~21:00
용하공원	화, 목	20:00~21:00	은하수공원	월, 수	20:00~21:00
대우9차앞 공터	화, 목	20:00~21:00	감골운동장	월, 수	20:00~21:00
			시남운동장	화, 목	20:00~21:00

자료제공 : 상록수보건소

'이 달엔 어떤 책을 읽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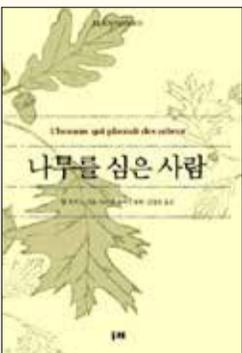
중앙도서관 추천도서

사바나의 쇠똥구리는 어둠이 내려앉으면 밤하늘의 별을 보고 제 갈 길을 찾는다. 알프스 칼새는 번식지에서 한 번 날아오르면 200일 동안 공중에서 내려앉지 않는다. 거미도 제 거미줄에 걸릴까봐 조심조심 발을 뻐다. 도서관에서 추천하는 책을 읽으며 살아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펼쳐는 경이로운 순간과 이야기를 들여보자. 자연, 다가가는 만큼 느낀다. 마음, 여는 만큼 보인다.

아동

나무를 심은 사람

장 지오노 / 두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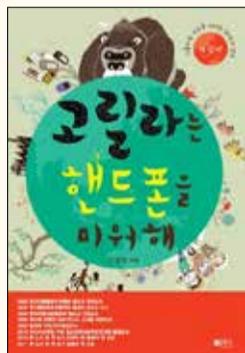
나무를 심고 가꾸는 한 늙은 양치기의 외로운 노력으로 프로방스의 황무지가 새로운 숲으로 탄생하고, 그로부터 수자원이 회복되어 희망과 행복이 되살아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이다.

간단해 보이는 줄거리 속에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 자연 파괴와 전쟁이라는 인간의 어두운 측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희망을 실천하는 주인공 '부피에'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며 깊은 울림을 준다.

청소년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

박경화 / 북센스



이 책은 핸드폰, 나무젓가락, 비닐봉지, 냉장고, 세탁기와 같이 우리가 늘 사용하는 물건들이 지구환경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려준다.

환경 파괴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이야기, 별 생각 없이 하는 소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아름다운 자연을 오래도록 깨끗하게 보호하는 실천 방법들, 가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신형 핸드폰 구입이나 일회용젓가락 구입을 줄이는 등의 아주 작은 실천 하나가 지구를 깨끗하게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성인

자연에는 이야기가 있다

조홍섭 / 김영사



환경과 과학 분야에서 30년 가까이 통찰력과 이슈가 있는 기사와 칼럼을 써온 환경전문 기자 조홍섭이 전하는 특별한 자연 에세이다.

동물행동, 생태학부터 진화론, 동물복지, 자연사까지 기초자연과학과 첨단응용과학을 넘나들며 펼쳐는 흥미롭고 감동적인 생명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살아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펼쳐내는 경이로운 순간과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자연을 바라보는 다른 차원의 눈을 선사한다.

독/자/투/고

안산시 거리의 마술사들

아주 가까운 집안 어른께서 환경미화원 일을 하고 계시다. 가족중에 환경미화원이 계시니 당연히 관심도 갖게 되고 그분들의 직업적 애환이나 생활상을 잘 안다.

누군가 직업을 물어봤을 때 환경미화원이라고 쉽게 말하기는 힘들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 가장 큰 이유는 환경미화원을 낮게 보는 우리의 편견 때문이다. 정말 몸과 마음이 고된 직업이다.

일전에 서울의 모 대학에서는 교내 환경미화원 아주머니에게 개념 없는 여대생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서 온 나라 인터넷에 경희대 패륜녀라는 이름으로 도배가 된 적도 있었다.

얼마전 새벽에 아이들을 데리고 작업장에 잠깐 따라나서 보았다. 새벽 작업은 4시부터였다. 이 시간에는 대부분 각자 맡은 구역을 돌면서 쓰레기를 차에 싣는 작업을 하신다. 시민들이 출근하기 전에 모두 작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거의 쉬는 시간 없이 일을 하는데도 시간이 빠듯하다.

밤새 쌓인 음식물 쓰레기는 압축차량으로 좁은 골목을 누비며 수거한다. 압축기를 돌아가면 오물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멀쩡이 비켜있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담은 바구니가 놓인 집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대문 앞에 내어 놓는다. 번번이 도둑고양이가 차 밑으로 몰고 들어간 음식물 쓰레기를 줍느라 허리가 휘다. 소주병, 컵라면 용기, 우유팩... 음식물 쓰레기에서 배어나오는 악취는 마스



크도 무용지물이 될 만큼 견디기 힘들다고 하신다. 가로 청소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들은 교통사고를 많이 당하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거리를 다니면서 곳곳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진 것에 대해 놀랐다. 길가에 버려진 담배꽂초와 광고 전단지, 캔, 휴지, 유리 조각 등 쓰레기 종류도 다양했다. 특히 학교 앞이나 공원 근처에는 꼬치 막대기, 과자 봉지, 장난감 종이,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까지 어지럽혀져 있었다.

깨진 유리병, 기름 범벅이 된 식용유통, 날카로운 못도 기계 속도에 맞춰 골라내다보니 손을 베이거나 파상풍에 걸리는 일이 잦다고 한다.

쓰레기로 가득찬 포대자루가 너무 무겁고,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를 보면서 그 냄새에 속이 울렁거리기도 했다. 적지 않은 연세에 어떻게 이 같은 일을 즐겁게 하실 수 있는지 너무 대단하고 존경스럽다. 하지만 요즘은 허리가 아프셔서 일하시기 힘들시다고 해 걱정이 되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청소를 끝낼 즈음 어떤 남자 분이 우리를 불렀다. 말끔한 양복을 차려 입고 급하게 출근하는 복장이었던 그 신사분. 우리에게 웬 비닐봉투를 건네주었다. 봉투를 받아 보니 그 안엔 따뜻하게 데워진 두유 4병이 들어있었다. 힘드실텐데 드시며 하시라고. 아침이라 출출하실것 같아서 샀다고... 우린 모두 깜짝 놀랐지만 감사하게 받았다.

환경미화원들은 안산시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행복하게 만드신다. 그 덕분에 모든 안산 시민들이 아침의 상쾌함을 맛보는것 아닌가.

이분들은 거리의 마술사들이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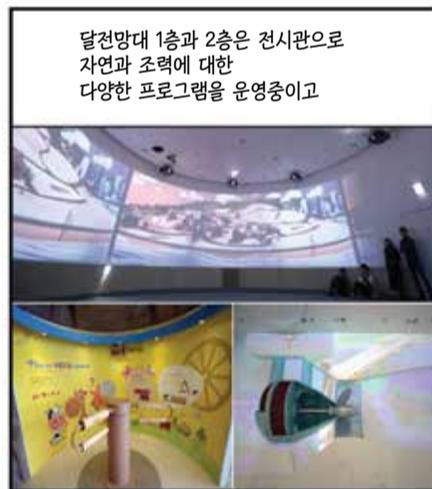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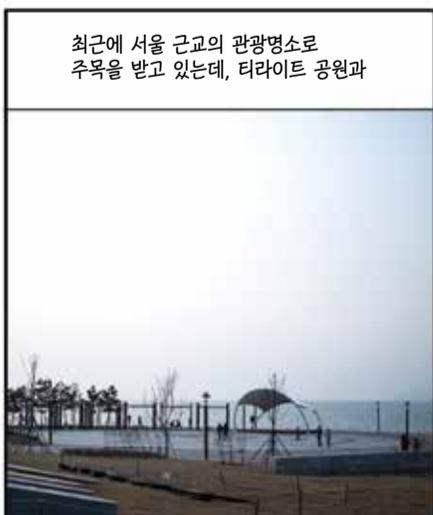
김원준 (상록구 본사로 48)

생활 속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채택 시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무료 구독신청 031-481-2042, E-mail : bravo@iansan.net

안산의 자랑

티라이트(T-Light) 공원

글.그림 이영호(kaljebi05@naver.com)



달전망대 1층과 2층은 전시관으로 자연과 조력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고



위층엔 서해의 풍광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지역 명물로 자리 잡았다.



- 위치 : 안산시 단원구 대부항길 1927 (대부동동 2098, K-Water 시화조력관리단)
- 문의 : 032.890.6520 • 달전망대 운영시간 : 오전 10시 ~ 오후 10시까지 (연중 무휴)

늘 똑같은 하루지만
누군가에게는 매 순간이 소중한 추억으로 자라납니다.
작은 일상마저 특별한 이야기가 되어주는 안산시
안산에 사는, 안산을 찾는 더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도록
당신의 일상속에 특별함을 더 합니다.

상상 그이상을 꿈꾸는 도시, 사랑 중심 안산특별시

풍도 복수초